

지역 상장사 '실속 없는 장사'

■ 12월 결산 23개사 영업실적 비교

3분기 누적 매출 20% 증가 불구

순이익은 전년비 절반 가량 줄어

매출은 늘었으나 순이익 급감하는 등 광주·전남 지역 상장사들의 올해 3분기까지 영업실적이 '속빈 강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법인 23개사를 대상으로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실적을 지난해와 비교 분석한 결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급감했다.(표)

지역 상장사들의 매출 총액은 5조5천76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0.7%, 영업이익은 3천805억원으로 16.5% 늘었으나 순이익은 632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47.9%나 줄어 들었다.

순이익은 전국적으로 감소(평균 21.7%)했지만 광주·전남지역 상장사의 감소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26.1%포인트나 높아 상대적으로 불황에 더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8%로 전년 동기(7.0%)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졌다. 즉 1천원을 팔아 68원을 남긴 셈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원인은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영업외적 요인에 의한 비용 증가가 수익성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기업별로는 금호산업, 광주신세계, 셀린 등 15개사는 흑자를 냈고 대우디앤씨, 파루, 해원에스티 등 3개사가 흑자전환했지만 금호타이어, C&중공업, 로케트전기 등 8개사는 적자를 냈다.

광주·전남지역 상장사들의 부채총액은 5조9천8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1%인 7천781억원이 늘었고 부채비율은 175.3%로 전년 동기대비 11.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부채비율은 전국 평균(98.5%)의 2배 수준에 육박하는 등 지역 상장사들의 재무안정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 황성용소장은 "기업에 따라 실적과 재무안정성에 편차가 크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역 상장사들이 전국 평균에 비해 재무안정성은 떨어지고 이익 규모도 작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지역 상장사 3분기(누적) 실적

회사명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대우신소재	1,002	-20	-33
로케트전기	330	-5	-56
조선내화	2,524	59	74
화천기공	1,114	112	128
보해양조	992	57	36
대우디앤씨	1,032	5	0.4
금호산업	17,575	1,204	906
C&중공업	821	-137	-419
셀린	1,059	71	176
KPX화인케미칼	2,697	582	50
부국철강	1,806	144	110
광주신세계	1,422	272	215
동이에스텍	264	2	-4
디에스알제강	989	108	91
금호타이어	17,626	1,209	-596
디지털텍	272	-3	-39
파루	288	19	20
성원파이프	982	36	17
와이엔텍	212	0	-22
파루	297	12	6
폴리플라스	186	-2	-50
해원에스티	1,884	71	19
행남자기	385	4	1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이 쌀을 저가 판매한 롯데마트에 반발해 롯데 제품 불매운동에 들어갔다.

농민들 쌀 저가판매 반발 롯데마트 제품 불매 운동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농협 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농민회 소속 농민들은 광주·전남 300여개 농협 하나로마트를 돌며 롯데 제품 판매거부를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은 최근 농협 측에 공문을 보내 판매거부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장흥과 보성 등의 하나로마트는 이미 롯데 제품을 매장에서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은 이날부터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롯데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파악해 판매거부를 확산시킬 방침이며 시민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농민들은 롯데마트가 이달 초 쌀값 할인행사를 벌인 데 대해 "쌀을

매운동을 통해 대형마트의 잘못된 판매정책에 대항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쌀 수확량이 평년 대비 7%가량 늘었는데 소비량은 늘지 않아 1주일 정도 소비 진작 차원에서 할인행사를 벌였다"며 "다른 대형마트와 비슷한 가격에 판매했을 뿐 쌀을 미끼상품으로 내세우거나 농민들에 불편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촉촉한 수분 오일 선물하세요

광주신세계는 20일 백화점 2층 아베다 매장에서 촉촉한 수분 성분과 유기농 에센스 오일이 함유된 율리데이 기프트 세트를 선보였다. <광주신세계 제공>

어제 태어난 행남자기 창업주 김준형 회장은 국내 첫 커피잔세트 개발 선풍적 인기 직원들 애경사까지 챙기는 자상함도

20일 타계한 행남자기 창업주 남강(南岡) 김준형(金浚炯) 명예회장은 1942년 순수 민족자본으로 생활도자기 전문회사인 행남자기를 창업, 굵지의 기업으로 키운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영광출신인 김 명예회장은 창업 직후인 1941년 27세 나이에 '일본에 빼앗긴 밥그릇을 되찾기 위해' 비싼 값에 수입된 일본식 도자기 대신에 '우리 사람'의 밥그릇을 만들자는 뜻을 세우고 '행남자기'를 설립했다. 김 명예회장은 1953년 국내 최초

로 커피잔 세트를 개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으며 1957년에는 순수 국내기술을 이용해 분자이나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다. 또 1985년 국내에서는 처음 도자기 플랜트 및 기술용역을 베네수엘라에 수출한 데 이어 1994년 국내에서 가장 많은 도자기를 수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김 명예회장은 작업시간에는 일본 유학을 떠났다. 일본에서 거의 노숙하다시피 지내며 김 명예회장이 배워온 도자기 기술은 행남자기의 뿌리가 됐다. 김 명예회장은 1953년 국내 최초

추위에 김장재료 가격 급등

무 75%·배추 55%↑

최근 날씨가 급격히 추워져 산지 수확작업이 어려워지면서 배추와 무·대파 등 주요 김장재료의 가격이 급등했다. 20일 농협전남지역본부와 하나로마트 등에 따르면 배추(10kg)는 지난 13일보다 무려 1천568원(55.4%) 오른 4천398원에 거래됐다. 무(10kg) 역시 13일 5천782원에서 20일 현재 1만133원으로 75.2% 급상

승했다. 대파(1kg)는 같은 기간동안 660원에서 1천295원으로 96.2%나 경증 뛰었다. 그러나 양파(1kg)는 1천24원, 고추(600g)는 5천700원, 마늘(1kg)은 1천820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이에 비해 과일가격은 보험세를 보이고 있다. 충청과 경상 지역에서 출하되는 사과(6개, 부사)는 수요 변동이 없어 지난주와 동일한 3천900원에, 배(7.5kg, 10개, 신고)는 산지 물량이 꾸준히 많고 김장수요도 늘어

지난주와 같이 2만500원에 거래됐다. 다만 감귤(5kg, 50개, 노지)은 출하량이 많지 않은 데다 물량 대비 수요가 늘어 지난주보다 2천900원(17.1%) 오른 1만990원에 팔렸다. 축산물 중에는 돼지고기가 김장철 수요증가와 산지 출하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 돼지고기 삼겹살 100g이 지난주에 비해 340원(20.6%) 오른 1천990원 수준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금호아시아나 대규모 인사 부사장 등 115명 승진 발령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은 지난주 사정단 인사에 이은 20일 대우건설의 이상한·박의승씨를 오는 12월 1일자로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인사명단 20면> 또 전무 12명, 상무 61명, 상무보 40명 등 총 115명의 임원을 승진, 발령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전남도, 홍콩 농수산물 수출기업들과 6천만달러 투자 협약

전남도가 중국 선전에 이어 홍콩에서도 농수산물 수출기업 등 3곳과 6천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박준영 지사를 단장으로 한 투자위원회를 중국 순방 3일째인 20일 홍콩에서 농수산물 수출기업인 홍콩 골든게이트 글로벌 정태선 대표 등 3개 기업 대표와 한영, 여수엑스포 및 광양

경제자유구역, 한중국제산업단지 등에 6천만달러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골든게이트 글로벌사는 홍콩에 법치단을 중국 순방 3일째인 20일 홍콩에서 농수산물 수출기업인 홍콩 골든게이트 글로벌 정태선 대표 등 3개 기업 대표와 한영, 여수엑스포 및 광양

고, 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을 동남아로 수출할 계획이다.

식품가공 및 물류기업인 영화실업 유한공사(오기린 주석)는 한중산업단지에서 3천만 달러를 투자해 식품가공공장 및 물류배송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또 홍콩 대통환구물류유한공사(서금진 총재)는 해운, 물류창고, 해상보위 업체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2천만 달러를 투입해 물류창고기지, 가공무역단지 조성 및 육·해·공 종합 물류시스템을 설립할 계획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경매투자상담/관리분석 **인베스트 경매컨설팅** **문의/의/전/화**
수익성분석 **금용, 세무상담** **062)236-0900**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5-10 2층 (법원정문 앞)

전문법률 상담 **변호사 나물수** **직원 모집** **경매를 배우면서 일하십시오(남/여)**

▶여름	▶주목	▶축약사실 (모텔)
소제지 대/면	소제지 대/면	소제지 대/면
면적	면적	면적
가격	가격	가격
최저가	최저가	최저가
비고	비고	비고

▶근린시설 **▶오피스텔/다세대** **▶토지**

소제지 대/면	면적	가격	최저가	비고
188/193	1090015㎡	598369만	294185만	근린시설
362/293	4194076㎡	2695009만	1347505만	근린시설
137/219	691999㎡	394719만	197359만	근린시설
136/468	1393525㎡	598819만	299409만	근린시설
213/899	229868㎡	891309만	445654만	근린시설
90/387	99837㎡	59899만	29949만	근린시설
287/854	2391322㎡	1092832만	546416만	근린시설
49/51	196114㎡	191280만	95640만	근린시설

▶농가관련시설

소제지 대/면	면적	가격	최저가	비고
439/222	9440㎡	4230만	2115만	농가관련시설
382/226	195000㎡	195000만	97500만	농가관련시설
738/410	294600㎡	191000만	95500만	농가관련시설
720/233	191000㎡	7720만	3860만	농가관련시설

실종된 애인을 찾습니다!
30, 40, 50부킹몰!

누래의 애인마를 찾습니다!
 여우의 꼬리!

기본 ₩19,500 **경제가 웃는 날까지 쭉-욱 계속 됩니다**

서울관광카바레나이트
 (대인동 롯데백화점 뒤/예약:062 226 9334)